

“트럼프 대통령 동북아 순방, 한반도 안보에 영향”



탐 맥데빗 회장은 14일 오전 10시 전주 르윈호텔에서 특강을 가졌다.

미국 워싱턴 타임스 탐 맥데빗 회장, 전주 르윈호텔 강연

미국 워싱턴 타임스 탐 맥데빗 회장은 14일 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동북아순방이 한반도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남북한과 미중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시대 도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탐 맥데빗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주 르윈호텔에서 가진 특강에서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과 동북아 안보'를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강은 평화통일지도자전북협의회(회장 김옥길)와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UFP) 전북지부(회장 정병수)가 공동 주최한 자리로 전북 주요 언론인 등 각계 지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탐 맥데빗 회장은 최근 일본과 한국에 이어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대통령의 행보와 이에 따른 향후 동북아의 안보와 북한 정책변화의 여러 가능성에

대해 밝혔다.

탐 맥데빗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직후인 지난 10일 한국 국회에서 한, 미, 일 3개국 국회의원과 외교안보 관련 싱크탱크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주최, 트럼프정부의 외교 정책의 핵심과 함께 한미일 정치계 및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함께 북핵 위기 해법을 모색했다.

탐 맥데빗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처음으로 '북 핵 문제와 동북아 평화'를 주제로 미국 국회에서 한, 미, 일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주목받기도 했다.

특히 탐 맥데빗 회장은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공동회장 덴버, 미국 14선 의원)의 수석 고문으로서 70여 개 국가에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을 창설하는 산파 역할을 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서장원 전북대 교수, 3대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전북대학교 서장원 교수(심리학)가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2018년 판에 등재됐다.

마르퀴즈 후즈 후는 미국 인명정보기관(ABI), 영국 캠브리지 국제인명센터(BC)와 함께 세계를 대표하는 인명사전으로 알려져 있다. 1899년 발간된 이후 매년 정치와 경제, 사회, 과학기술,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리더를 선정, 업적과 이력을 소개하고 있다.

심리학 분야에서 고등 감내력과 음주문제, 자살 등을 주로 연구하는 서 교수는 SSCI 국제 저명 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국내 학술지 및 저술활동에도 활발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서 교수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심리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 레지던트, 서울대 인문대 학생생활문화원 심리상담원으로 재직했으며 2016년부터 전북대 심리학과 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다.

또한 심리학회지 편집위원, 'Addictive Behaviors' 논문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우영 전북대 대학원생, 대한전기학회 우수논문상

전북대학교 최우영 대학원생(전기공학과 전력망 연구실 박사과정)이 최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 48회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전북대는 최 대학원생은 이번 학회에서 '국내 FR 용 BESS의 전력계통 관성응답 보상효과 분석'란 논문을 발표,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연구는 국내 전력계통에서 주파수 조정용으로 세계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236MW 배터리 전기저장장치(BESS)가 우수한 제어전략과 성능을 통해 기존 화력발전기 조속기의 응답뿐 아니라 전력계통의 관성응답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실제 국내 전력계통 모델을 통해 검증하고 그 기여도를 정량화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국내 전력계통에서 신재생 발전원의 대규모 확충 시에도 BESS가 계통의 안정화 확보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이 논문은 전북대 전력망연구실이 올해 한국전력공사 본사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경영정책 연구과제의 결과로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우수논문상을 수상하면서 산학협력의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한편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는 국내 전기(공학)분야 학술대회 중에서 최대 규모로 2017년에는 산학연 전문가 1700여 명이 1104편의 학술논문 및 연구개발성과를 발표했다.

/정해은 기자

무주군체육회장배 민속경기대회 개최

2017 무주군체육회장배 민속경기대회가 14일 무주읍 반딧불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민속경기 보급과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군체육회와 무주군 민속경기협회(회장 이광부)가 공동 주관한 가운데 36개 팀 240여 명이 참가해 제기차기와 후호, 고리걸기, 윷놀이 등을 즐겼다.



참가자들은 "추우면 움츠러들고 그러는데 민속경기를 하니깐 어릴 적 생각도 나고 체력적으로 부담도 없어서 좋다"라고 전했다.

황정수 군수(무주군체육회장)와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 전라북도 백경태 도의원 등 내빈들도 함께 한 개회식에서 황 군수는 "이 자리가 올 한 해 고생한 수고를 달래고 오늘까지 올 수 있도록 힘이 돼준 서로를 위로하는 화합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성 기자

장수군 학교4-H 회원 대상, 취미교양교육 실시 '호응'

장수군이 다양한 취미교양교육으로 창조적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관내 학교4-H 회원을 대상으로 취미교양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원)는 지난 2일부터 관내 학교4-H회원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서 5회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을 시작으로 다육공예, 목공예(접이식테이블만들기), 냅킨아트 등 취미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석구 전문교육팀장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4-H활동을 통해 4-H이념(지·덕·노·체)을 생활화하고, 농심을 배양하여 우리 농업·농촌을 사랑하고 창조적 미래세대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 학생 4-H회는 장수 중·고등학교, 산서 중·고등학교 등 관내 7개 학교 13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군은 올해 학교4-H 회원을 대상으로 학교 텃밭 가꾸기, 문화탐방교육 등을 지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정읍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지구촌 어울마당 성황리 열려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은도)가 주관한 '제7회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지구촌 어울마당'이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12일 연지동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700여 명이 참여했다.

다문화가족 음악밴드인 '아라리오'와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여성들의 전통춤인 수브 '리' 공연에 이어 내장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화려한 난타 공연을 선보였다.

곧바로 중국과 필리핀 등 10개국의 국기 입장작 기념식, '함께 해요, 우리는 한 가족'을 주제로 하는 어울마당이 진행됐다.

아울 마당에는 다문화가족과 시민이 함께 참여해 줄다리기 등 다채로운 경기를 가지며 화합을 다졌고 모두 18팀이 출전한 가운데 장기자랑도 펼쳐졌다.

오은도 센터장은 "다문화가족민의 축제가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해 다양한 문화를 보고, 직접 체험해보며 공감하고 화합하는 장이 됐다"며 "앞으로도 화합하며 어우러지는 자리를 자주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순창경찰서, 청사 내 화재발생 대비 합동소방훈련 실시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는 14일 남원소방서 순창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청사 내 화재 발생 대비를 위한 화재 예방 및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2017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순창경찰서 경찰서 자위소방대 및 순창119안전센터 소방대원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소방차, 구급차 등이 동원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특히 가상 화재발생 상황을 연출하여 대피훈련과 더불어 화재진압훈련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초기 화재 발생 시 인명대피 및 피난 요령과 소화기·육내소화전 사용 요령 교육을 실시, 화재 발생에 따른 초기대처 능력을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고 직원들의 소방안전의식을 높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7년 11월 25일 (월요일)
등록번호: 전북 74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48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근 전무 겸 편집장 김관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중앙지사 010-938-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888
010-9845-4113	인후지사 246-6866	김제지사 547-8866	임실지사 010-9842-2725
삼천지사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66	진안지사 433-3084
010-2333-4791	팔복지사 253-6884	남원지사 632-0966	정읍지사 536-3087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3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호주지사 010-8645-9335	익산지사 63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헌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깊이서 더 아쉬운 계절, 가을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남원에츰 by 컨싱턴으로 여행을 계획해 보십시오. 남원에츰 by 컨싱턴은 이랜드 호텔레저 사업부와 남원시가 함께 선보인 명품 한옥으로, 화학재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오롯이 자연에서 얻은 귀한 재료로 문화재 명장이 공정마다 손을 담아 오랜 기간 정성을 들여 기품 있는 한옥의 맛이 느껴집니다. 코끝에 닿는 나무, 흙냄새와 새들의 위은 노랫소리, 창가에 스미는 햇살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아침을 상상해 보세요. 머물 지체가 휴식이 되는 남원에츰에서 비움과 사색의 시간을 가지고, 가을의 운치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남원에츰 by 컨싱턴